TV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굿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 연속극 〈어머님은 내 며느리〉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특집 민주화 거목 김영삼 전 대통령 타계	00 월화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재)	00 찾아라 맛있는 TV스페셜	10 닥터 365(재) 15 세계문화탐방 지구촌축제 50 SBS 12 뉴스
12	40 채널A 뉴스 특보	00 KBS 뉴스 12	05 1 대 100(재)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45 닥터 365 55 톡톡보험설계
1	50 뉴스특급	00 KBS 명품역사관 역사저널 그날(재) 50 세계가 품은 한국의 미(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5 생생정보 스페셜(재)	20 문화사색(재)	
2		00 2015 전국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배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05 내꺼야 폴록 30 꾸러기 식사교실	00 영재발굴단
3	00 이언경의 직언직설	55 튼튼생활체조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공부책상 위키	00 MBC 뉴스 10 똑? 똑! 키즈스쿨 40 꼬마돌 도도	00 3시, 뉴스브리핑
4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코스타리카〉	00 TV 유치원 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재) 40 동물의 세계	2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스페셜 30 토닥토닥 꼬모
5	50 김승련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화가 좋다(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글로벌24 30 2TV 저녁 생생정보1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나는 몸신이다(재)	00 KBS 뉴스 7 30 시사현장 맥	50 일일 드라마 〈다 잘될거야〉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
8	20 갈데까지 가보자	25 일일연속극 〈우리 집 꿀단지〉	30 2TV 저녁 생생정보2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SBS 뉴스토리
9	40 채널A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기획 창 55 세계가 품은 한국의 미	00 월화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	00 월화특별기획 〈화려한 유혹〉	00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
11	00 충격 실화극 〈싸인〉	00 KBS 뉴스라인 40 창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10 우리동네 예체능	10 PD수첩	15 불타는 청춘
12	30 아내가 뿔났다(재)	35 독립영화관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 토론	35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성공! 인생 후반전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07:00 레이디버그
0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07:45 로보카 폴리
08:00 딩동댕 유치원 1
08:10 Why 최고다 호기심딱지
08:20 딩동댕 유치원 2
08:30 두다다쿵
08:40 딩동댕 유치원 3
08:45 코코코 다코
09:00 크레멍의 창의력 팡팡
09:40 부모-이슈 N 맘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10 다큐 오늘
11:20 세계테마기행 (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스페이스 공감2(재)
13:05 지식채널e
13:10 갤럭시 프로젝트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50 오스카의 오아시스
14:00 허풍선이 과학쇼
14:30 뚜바뚜바 눈보리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5:40 모피와 친구들
15:50 크레멍의 창의력 팡팡(재)
16:30 코코코 다코
16:45 딩동댕 유치원 1~3(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
17:45 로보카 폴리(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
18:05 캐니멀
18:2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2
18:25 두키탐험대
18:4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3
18:45 신통방통 공룡 슈퍼
18:55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4
19:00 레이디버그(재)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겨울왕국, 시베리아를 가다〉
21:30 한국기행 〈찬바람 불면, 김장〉
21:50 EBS 다큐프라임 〈생존〉
22:45 리얼극장
23:35 프레임 인
24:05 지식채널e
24:15 EBS 인문학 특강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알짜개념〉
00:50 〃 고교 Basic Grammar-junior
01:40 〃 〈문학-알짜개념〉
02:30 〃 〈미적분Ⅱ〉
03:20 〃 〈수학Ⅰ〉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 〈미적분Ⅱ〉
05:00 뉴탐스런 〈물리〉
06:00 〃 〈생명과학Ⅰ〉
06:50 〃 〈동아시아사〉
07:40 〃 〈윤리와 사상〉
08:30 〃 〈사회문화〉
09:20 〃 〈한국지리〉
10: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수학Ⅰ〉
11:00 뉴탐스런 〈생명과학Ⅰ〉
12:15 〃 〈윤리와 사상〉(재)
13:05 수능특강light 〈영어-독해〉
14:00 올림포스 〈문학-알짜개념〉(재)
14:50 〃 〈고교 Basic Grammar-junior〉
15:40 〃 〈미적분Ⅱ〉(재)
16:30 〃 〈수학Ⅰ〉(재)
17:20 〃 평가문제 〈미적분Ⅱ〉(재)
18:10 뉴탐스런 〈사회문화〉(재)
19:10 〃 〈동아시아사〉(재)
20:00 EBS스타강사 특강
20:50 배움플러스(재)
21:00 수능특강light 〈영어-듣기〉
21:50 한컷의 과학 시즌2
2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23:05 뉴탐스런 〈한국지리〉(재)
23:55 지식채널e

EBS플러스2

07:00 물류관리사 시험대비 강좌
07:30 9, 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08:30 AT자격 시험대비강좌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09:10 TV중학 〈국어(1)(2)〉
09:50 〃 〈수학1(상)〉
10:30 〃 〈역사 2〉
11:10 〃 〈국어(3)(4)〉
11:50 〃 〈수학 2(상)〉
12:30 실전취업가이드
13:00 데일리 서술형 수학
13:10 등업신공 〈수학1(상)〉
13:50 중학 중간, 기말시험 대비 문제풀이 〈과학 1-2〉
14:30 등업신공 〈수학2(하)〉
15:20 만점왕 〈수학 3-2〉
15:50 〃 〈수학 4-2〉
16:20 〃 〈수학 5-2〉
16:50 〃 〈수학 6-2〉
17:20 초등수학 개념잡기
17:50 다큐 오늘
18:00 TV중학 〈국어 (5)(6)〉
18:40 〃 〈수학3(상)〉
19:20 필독중학 세계사
20:00 EBS 기획특강
20:50 EBS 기획시리즈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22:00 중학 중간, 기말시험 대비 문제풀이 〈과학 2-2〉
22:40 등업신공 〈수학3(하)〉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4일(음 10월 13일 甲辰)

子 48년생 예상치 못한 위험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하자. 60년생 진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오해를 받는다. 72년생 확신이 서더라도 아직 실행할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음을 알라. 84년생 실질적인 이익은 적고 할 일은 많겠다. 행운의 숫자 : 11, 22

丑 49년생 구색을 다 맞추려 하면 특별함을 도모하기 힘들다. 61년생 눈에 띄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이 따로 있음을 알아야 한다. 73년생 우연한 계기가 필연으로 연결될 것이다. 85년생 명확한 기준으로 개념을 분리하는 것이 편하다. 행운의 숫자 : 36, 48

寅 38년생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0년생 길이 힘들고 지루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묵묵히 나아가자. 62년생 생산성을 제고하자. 74년생 일반적인 방법의 채택이 가장 무난하다. 86년생 잠시 보류해 두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55, 67

卯 39년생 매끄럽게 처리해야 무리 없다. 51년생 성과물이 모든 것을 대변하게 된다. 63년생 얼마나 깊이 다루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75년생 사소한 것에서부터 위험이 싹틀 수 있다. 87년생 중지를 모은다면 모색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1, 81

辰 40년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 52년생 순조로워서 경사가 겹칠 수도 있다. 64년생 재물이 즐비하니 취하는 이만이 임자가 되리라. 76년생 조금만 더 나아가면 디딤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4, 04

巳 41년생 오매불망하던 것을 기다리며 하루를 다 보내겠다. 53년생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도 고운 법이다. 65년생 탈은 없을 것이니 현 상태를 유지해도 된다. 77년생 비워두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만전을 기하자. 행운의 숫자 : 86, 44

午 42년생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지연되면서 갖가지 변수가 드러나게 되어있다. 54년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행될 것이니라. 66년생 작은 것에 기쁨이 있느니라. 78년생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45, 89

未 43년생 학수고대하며 바라던 것이 드디어 들어오는 성국이다. 55년생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도다. 67년생 자연스러움이 제일 무난할 것이다. 79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줄줄 새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72,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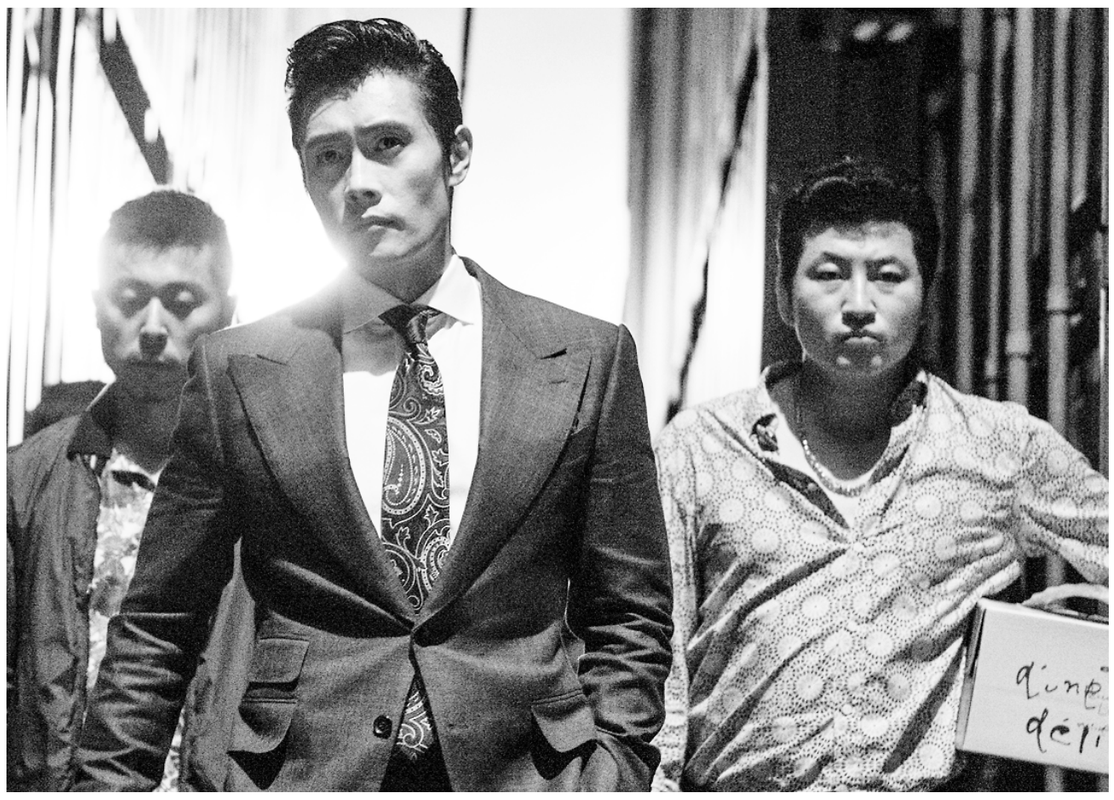
申 44년생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구태의연할 뿐이다. 56년생 작은 일에 매달리다 보면 큰일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68년생 굳이 감출 필요가 없으니 투명하게 임하라. 80년생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19, 63

酉 45년생 천 길 방죽도 개미구멍 때문에 무너지는 법이다. 57년생 기존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버리고 확실히 전환해 보자. 69년생 기본적인 환경과 여건의 조성이 급선무이다. 81년생 희망 사항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80, 30

戌 46년생 즉흥적인 조치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응 하자. 58년생 미흡하더라도 수용하는 것이 백번 나을 것이다. 70년생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하하다. 82년생 스스로 해내는 것이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10, 77

亥 47년생 주체성 있는 관점이 절실히 요청된다. 59년생 근본적인 처방을 하지 않는다면 불협화음이 생기리라. 71년생 무리수를 둔다면 필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83년생 현실 여건에 착실히 순응하는 것이 최상책이라 할만하다. 행운의 숫자 : 93, 5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내부자들', 19금 영화 신기록 다시 쓴다

주말 1위…일일 최다 단객수 등 경신

대한민국 사회를 움직이는 인물들의 의리와 배신을 담은 범죄드라마 영화 '내부자들〈사진〉'이 지난 주말 극장가를 휩쓸었다.

23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내부자들'은 지난 20~22일 전국 1075개 스크린에서 1만5233회 상영되면서 126만1124명(매출액 점유율 53.2%)이 관람했다. 누적 관객 수는 160만6140명에 이르렀다.

청소년 관람 불가(청불) 영화로 종전 개봉 첫 주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보유한 '쌍화점'(2008)이 6일간 모은 관객수(150만8843명)보다 많은 수치라고 이 영화 배급사 쇼박스는 밝혔다. 또 청불 영화 가운데 '내부자들'은 지난 21일 하루 48만9515명의 관객을 동원해 '타짜-신의 손'이 보유했던 일일 최다 관객수(47만5507명)도 뛰어넘었다.

영화는 정치인·재벌·언론·조폭·검찰 등 우리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직업군이 모두 등장해 권력을 가진 내부자들이 공생·기생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그렸다. 이병헌·조승우·백윤식 등 선 굵은 배우들이 출연해 개봉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

'검은 사제들'은 지난 주말 사흘간 전국 778개 스크린에서 1만1802회 상영돼 48만7688명(19.5%)의 관객이 들었다. 누적 관객 수는 전날까지 444만8736명에 달했다. 뺑소니 교통사고 이후 의문의 증상에 시달리는 한 소녀를 구하려고 분투하는 두 신부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김윤석·강동원이 신부로 출연했고, 박소담이 악령에 깃든 소녀를 연기했다.

2012년 시작된 시리즈물의 막을 내리는 제니퍼 로런스 주연의 '헝거게임:더 파이널'은 같은 기간 33만959명(13.0%)을 모아 박스오피스 3위를, 007시리즈 24번째 영화인 '007 스펙터'는 21만1473명(8.7%)으로 4위를 차지했다.

개봉 10주년을 기념해 재개봉한 다양성 영화 '이터널 선샤인'은 지난 주말 3만775명(1.3%)이 관람해 재개봉작으로 좋은 흥행 성적을 이어갔다. 최근 이 영화는 개봉 당시의 관객 수(16만8691명)를 넘는 진기록을 세웠다.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애창곡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가이자 노예해방에 헌신한 존 뉴턴 목사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프리덤'은 2만4614명(0.9%)을 끌었다.

이밖에 중국 애니메이션 '개구리왕국'(1만3825명), 화성에 홀로 남은 우주비행사의 생존 과정을 그린 '마션'(1만375명), 일본 뮤직 엔터테이닝 애니메이션 '아이돌 마스터 무비:빛의 저편으로!'(8429명), 앤 해서웨이와 로버트 드 니로 주연의 '인턴'(5606명)이 지난 주말 박스오피스 10위 안에 들었다.

故 신해철 부인 '신해철법' 청원

"아픔 겪는 분들께 도움 되길"

고(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가 일명 '신해철법' 심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윤씨는 23일 오전 9시30분께 고인의 동료 음악가 남궁연씨와 팬클럽 '철기군' 회장,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신해철법 심사 촉구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신해철법'의 취지, 통과해야 하는 필요성, 그리고 "해당 법률의 심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청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서를 내고 기자들과 만난 윤씨는 "저희 가족이 겪은 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런 비슷한 아픔을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다"면서 "또 앞으로 누군가 이런 아픔을 겪게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의료인이 사고 중재를 거부하면 조정이 시작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법안이다.

남궁연은 "의료분쟁 조정 기관이 있는데도 중재가 잘되지 않는 이유는 거부권이 있기 때문"이라며 "의사가 환자의 적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판단을 누군가가 공정하게 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과 현재 유가족이 진행 중인 의료소송 재판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유가족이 지금까지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라도 비슷한 일을 당하는 가족분들을 위해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정준하 마리텔 출연 논란…"가학적" 비판 목소리

뺨 때리고 물풍선 맞고…시청자 반응 싸늘

이쯤 되면 즐겁다는 감정보다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앞선다. 놀면서 돈 버는 것 같던 '예능인'의 삶이 이런 것인가 숙연해지기까지 한다. 김치로, 짜장면으로 스스로 따귀를 때리더니 야구선수와 제작진 여러명에게서 마구잡이로 물풍선을 맞아 만신창이가 돼도 웃는다.

22일 오후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하 '마리텔) 생방송에 출연한 정준하 이야기다.

정준하는 '무한도전' 멤버들의 시간을 경매하는 '무도드림' 특집에서 500만원에 '마리텔'에 팔렸다.

그는 방송 콘텐츠를 담은 박스를 준비해 뒤에 쌓아두고 하나씩 열며 방송을 진행하고 걸그룹 트와이스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을 초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 각오를 다졌지만 반응은 차가웠다.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 진행된 생방송에서 전반전부터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지루하다는 평이 나오자 정준하는 김치와 짜장면으로 따귀를 맞으며 혼신의 힘을 다했다. 소고기 먹방으로 시작한 후반전에선 김구라의 게스트로 온 야구선수 유희관과 김정민이 정준하의 방을 방문했다. 재미가 없으면 자신에게 물풍선을 던지라며 정준하는 유희관에게 물풍선을 건넸고, 유희관은 던졌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떠나려던 유희관이 정준하의 얼굴에 갑자기 물풍선을 던졌다. 정준하의 표정도 잠시 일그러졌다.

우동, 새우를 먹은 정준하는 정해진 시간 내에 꼬막을 다 먹지 못해 제작진들로부터 물풍선 세례를 받기도 했다.

'물에 빠진 생쥐' 같은 몰골로 외친 "'무한도전' 멤버들 그만 잡아가라, 이걸로 끝냅시다"라는 그의 말은 측은하기까지 했다.

정준하는 방송 중 의자를 돌려앉으면서 카메라를 피해 감정을 추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이 방송이 너무 가학적이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블로거 'huhm＊＊＊＊'는 "누군가가 괴로워하고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손을 내밀어줄 수 없는 기분이었다"며 "정준하가 오늘 방송에 너무 회의감을 갖지 않았으면, 상처가 치유됐으면 좋겠다"고 썼다.

제작진의 편집이 이뤄진 방송분은 오는 28일 방송된다. /연합뉴스